



♡ 유임정 10기 - 합.격.수.기. ♡

수강생명	정○○ 수강생		수강방식	직강, 인강 병행
응시지역	경기		병행 여부	올인
공부경력	4수		등수	경기 121등
점수	1차	교육과정: 59 논술: 16	2차	수업실연: 57.76 면접: 38.13

좌우명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	--------------------

0. 시험 준비 과정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지역에 합격하게 된 수강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에 대학원과 병행하며 임용 공부를 시작해 2026학년도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4수 끝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과를 졸업한 후 2022년 여름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그 이후로 임용 준비를 이어왔습니다. 2024년(3수)에는 유치원 오전 보조를 병행하며 공부했고, 그 외 기간에는 임용 준비에 올인해 왔습니다.

1차 성적은 2023학년도 컷 -2.6(인천), 2024학년도 컷 -0.66(경기), 2025학년도 컷 -4(경기)였으며, 2026학년도에 처음으로 1차 합격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2025학년도 시험을 마친 후에는 컷과 더 떨어진 것을 보고 임용 시험을 그만 보고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간이 아쉽게 느껴졌고, 2025학년도에 오전 보조를 병행하며 체력적으로 버거웠던 점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올인으로 1년만 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2026학년도 시험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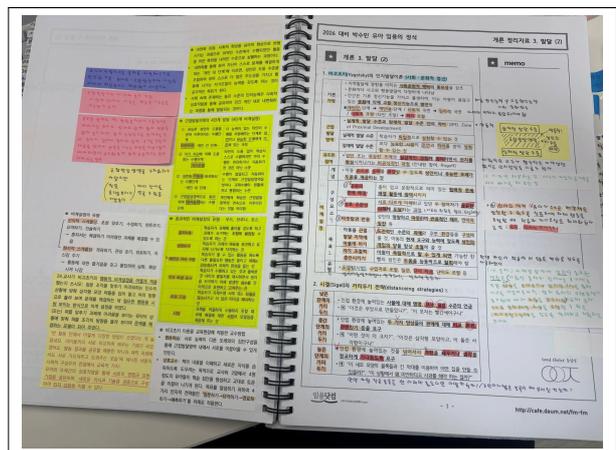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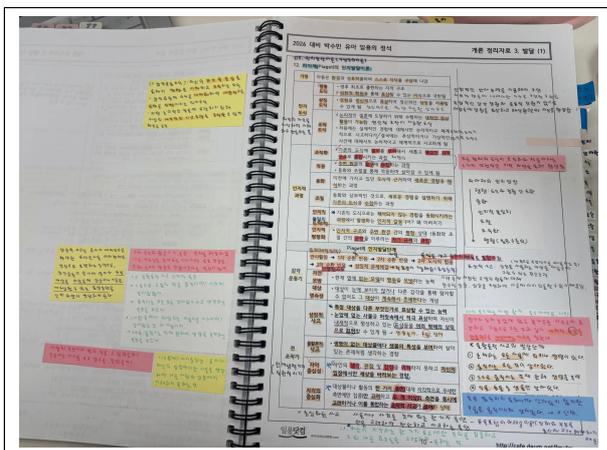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공부 시간이 많지도 않고, 1차 점수나 최종 등수 역시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같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이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시험 이후에는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며 겨울방학 동안 에듀케어 대체 근무를 한 뒤 2025년 3월 중반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인강을 따라가기 위해 문풀 전까지는 인강으로 공부했고, 문풀 시기부터는 직강에 참여했습니다. 모의고사 마지막 한 달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본가에서 공부하고자 하여, 10월부터 남은 모의고사 3회차는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1. 1~10월 시기별 공부 계획 및 방법 (유임정 강의 활용 방법)

1) 개각론 (3~6월)

- ◆ 3월부터 다시 공부 습관을 잡는 데 집중하며 개론 인강부터 들으며 진도를 나갔습니다. 개론은 1일차 - 인강 듣기 / 2일차 - 구조화·단권화·암기 / 3일차 - 기출 풀기·분석 및 기출 인강 듣기의 루틴으로 한 파트씩 이어갔습니다.
- ◆ 4수임에도 개론과 각론 인강을 모두 들은 이유는 공부의 진도를 잡아줄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강을 들으며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이해, 정리하고, 요약본에 없는 내용이나 추가 설명을 덧붙여 정리했습니다. 이후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목차를 구성하며 구조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 전년도에는 강의를 들을 때 요약본에 충분히 정리하지 못해 문풀 시기에 요약본을 다시 정리할지, 쪽 기본서만 보며 암기할지 고민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부터 요약본에 모든 내용을 정리해 두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요약본은 단면 인쇄하여 오른쪽 빈칸과 왼쪽 여백을 활용해 추가 필기를 하며 정리했습니다.



단권화 예시 (설명은 검은색, 기출은 초록색, 문풀 오답은 분홍색, 모고 오답은 보라색으로 추가했어요.)

- ◆ 4월 첫 주까지 개론을 마무리한 뒤, 4월부터 6월까지의 각론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개론은 3일에 한 파트씩 진행했다면, 각론은 3일에 한 주차씩 계획했습니다. 의사소통 영역부터는

분량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계획에 지나치게 연연하기보다는 인강-단권화-구조화-기출 분석의 큰 흐름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각론부터는 목차를 활용한 타이핑 백지 쓰기를 병행했습니다. 아이패드 굿노트 앱에 코넬 노트로 왼쪽에 목차를 정리하고, 오른쪽에 해당 내용을 타이핑한 뒤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과 사회관계의 단계명은 반복적인 인출이 필요하다고 느껴, 혼자서는 꾸준히 하기 어려워 5월 중반부터 단계명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하루에 3개씩 타이핑하여 인중하며 인출을 이어갔습니다.

◆ 각론도 인강-단권화-구조화-암기-인출-기출 분석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6월까지 완벽한 암기보다는 7월 공부를 위해 단권화 작업을 잘 해놓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저의 흐름대로 이어나가며 인강으로 직강 진도를 따라잡아서 6월 실력 점검 모의고사 전에 각론 진도를 똑같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론2. 사상 01. 한국의 유아교육사상 1. 동학에 나타난 유아교육사상 2. 소피 행정환- 아동관, 교육관, 교육방법, 교육철학2, 어란이론총3 02. 서양의 유아교육사상 1. 고대 사회-16세기 1) 소크라테스- 사상, 목적, 방법2, 역할 2) 플라톤- 사상, 목적, 본성3(덕, 직업) 3)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목적, 내용3 + 로마, 중세, 르네상스 시대 2. 17-19세기 + 교육철학(실학주의,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1) 코메니우스- 사상, 목적, 내용3, 원리4, 저서 2) 루크- 사상, 목적, 내용3, 방법4, 저서2 3) 루소- 사상, 인간관, 목적, 내용3, 원리 및 방법6, 저서 4) 오베르망 5) 오웬 6) 페스탈로치- 사상, 인간관3, 목적, 내용, 원리6, 저서 7) 프뢰벨- 사상, 목적, 아동관, 원리5+방법1, 방법2 3. 20세기(전보주의 시대) 1) 백일안 저재 + 전보주의(vs전통적 교육관)(목적, 내용, 방법, 교사역할, 특징, 장점, 단점) 2) 듀아- 사상, 인간관, 교육사상, 목적, 내용, 방법, 원리5, 실용학교, 교사 역할, 놀이, 놀이4 3) 몬테소리- 사상, 아동관, 목적, 주요개념5, 내용, 교육방법4, 원리1, 교사역할 4) 니콜- 사상, 목적, 내용2, 방법 5) 슈타이너- 인간관(통합적 인간관3, 구성제4, 기질론4), 목적, 내용, 방법, 오이리데미 + 교육철학(20세기 전기: 전보주의, 분할주의, 왕조주의, 재건주의) (20세기 후기: 실존주의,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분석철학)

각론5. 자연탐구 - 1. 과학교육 01. 이론적 관점 1. 인지의 구성주의 - 관제, 목적, 내용, 방법 + 피아제, 지성의 유형3 2.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 영역, 구성능력4, 개념2 3. 반부대의 탐구학습이론- 목적, 표상형식3, 발견학습5 4. 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한 유아 과학교육 -정의3, 기법방법5 02. 구성주의 과학활동 1. 카타, 드브린스의 물리적 지식 활동 1) 물리적 지식 활동 유형3 2) 물리적 지식활동의 지도 원리4 2. 교사의 역할 1) 과학 활동시 교사의 역할6 2) 교사의 개념 - 직관적 개념3, 간접적 개념3 + 과학성품에서의 변인통제 3) 과학교수 물리과 과학교수 활용량 04. 과학교육 내용 3요소 1. 과학적 탐구10 2. 과학적 과정기술10 3. 과학적 지식(결과) - 유형5, 형성 과정4 05. 유아 과학의 내용 1. 물리 2. 화학 + 유아 과학 실험 -서화실험, 그림자실험, 경사로 실험, 물의 압력실험, 무게중심의 원리, 중벌실험, 소리관 실험, 물에 뜨고 가라앉는 물건 찾기 06. 유아 과학 교수법4 + 상황적용 방법2 07. 놀이를 통한 유아 과학교육- 학습주제4, 놀이를 통한 과학활동3 08. 창의성 교육 1. 칼포드, 시그의 유형2 2. 창의성 구성요소5 + 학자별 창의성 구성 요소-아미셀, 직센트미하이, 한국과학창의재단 3. 창의성 기법17 (브라운의 스핀머, 강해권한법, P시, 속성열거, 목적식고무지, 남작의 나인 여행, 4개 속사고, 마인드맵, 희망열거법, 두 돌 생각, 아이디어 목마, 사파리 및 상상화, 생각 아이디어기, 역할극, 형태분석법, 창의력 극대화)

목차 예시 (거의 요약본 순서대로 했어요. 보면서 인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 논술 (5월 중반~8월)

◆ 공부를 시작한 이후 매년 논술 강의를 수강해 자료가 어느 정도 있었고, 기본기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논술은 개.각론 공부를 충실히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판단하여, 올해는 별도의 논술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 다만 처음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박수민 교수님의 논술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본반에서는 논술 기출을 다 다룰 수 있고, 심화반에서는 예상 주

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해주셔서 부담스럽더라도 성실히 따라가면 논술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 자료로 다뤄주시는 주제들이 개·각론 내용과 2차 준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논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부법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에도 5월 중반부터 일주일에 한 편은 써보자는 목표로 인증 스테디를 운영하며, 주 1회 논술을 작성했습니다. 작성 후에는 모범 답안과 비교하며 자가 첨삭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첨삭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부족한 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 자가 첨삭으로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논술 기본반 문제를 활용했습니다. 자가 첨삭을 해보고 모범 답안에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문장을 논술 노트에 정리하고 틈틈이 보려고 했습니다.

3) 하이실/ 건강·안전

- ◆ 고시문은 매일 범위를 나누어 타이핑 인출로 공부했습니다. 초수 때는 유튜브의 고시문 송을 활용해 암기했습니다. 하이실은 공부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영역이었습니다. 올해는 해설서라도 모두 내면화해 보자는 목표로, 해설서를 보며 요약정리를 했습니다. 이후 정리한 자료에 빈칸을 그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보며 빈칸 맞추기 방식으로 반복했습니다.
- ◆ 건강·안전은 신체운동·건강 영역 학습 이후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계획에 따라 매일 진행했습니다. 요약본에 단권화한 후 매일 반복해서 읽으며 내면화했고, 처음에는 요약본 위주로 보다가 점차 해당 범위의 법 내용까지 함께 보며 빈칸 맞추기로 공부했습니다.

4) 문제풀이 (7월~8월)

1주		2주		3주		4주		5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7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주		7주		8주		9주		10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8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 8월 월간계획표

- ◆ 6월 말에 실력점검 모의고사를 본 후, 지금까지의 공부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OT에서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강의계획서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 7월부터는 문풀 진도에 맞춰 주 영역을 4일(월~목)로 나누어 배치했고 부영역도 동일하게 계획했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주영역	성+발	사+놀	교+부	신	의	사	예	자
부영역	신	의	사	예	자	교+부	사+놀	성+발

- ◆ 다만 주영역을 우선시하다 보니 부영역을 공부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획을 계속 수정하기보다는, 그날 배치한 것에 충실하자는 원칙으로 이어갔습니다. 금요일에는 논술만 배치하고, 주중에 못 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니 계획을 지키지 못한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5) 모의고사 (9월~11월)

- ◆ 모의고사 기간에는 일주일에 전 과목을 모두 돌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타이핑 인출로 진행했으나 속도가 너무 느려 2주에 한 회독도 버거웠고, 이에 대해 교수님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구술 인출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 ◆ 이 시기에는 집공과 스터디카페 공부를 병행하였는데, 스터디카페에서는 구술 인출이 어려워, 타이핑 인출과 마음속 인출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점차 '진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0월까지도 일주일에 전 영역을 모두 돌리지는 못했고, 시험 직전에는 3일씩 나누어 겨우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전 영역 회독이 어려운 선생님들께, 너무 스트레스받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로 공부를 이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체 부모	의사 -언어발달 교사	사회 -사회발달 놀이	예술 -음악교육 사상	자연 -과학교육 발달	의사 -언어교육 문학교육 교사	사회 -사회교육 놀이	예술 -미술교육 사상	자연 -수학교육 발달	못한 것 성격 부모
----------	-------------------	-------------------	-------------------	-------------------	---------------------------	-------------------	-------------------	-------------------	------------------

- ◆ 운영 영역을 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운영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일 30분씩만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잘게 나누어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운영 영역을 많이 돌리지는 못했지만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고, 점차 손에 잡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시행착

7) 진행했던 스터디

① 구루미 캠프스터디(4월~시험 전날)

저는 체력과 집중력이 모두 약한 편이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특히 힘들었고, 스스로 공부 시간을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캠프스터디의 도움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장시간 고정적으로 앉아 있어야 하는 스터디는 오히려 저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또한 운동 시간이 매일 달랐기 때문에, 제 생활 패턴에 맞춘 교시제 캠프스터디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 0교시 7:10-8:10	- 6교시 15:50-16:50
- 1교시 8:20-9:20	- 7교시 17:00-18:00
- 2교시 9:30-10:30	- 8교시 19:50-20:50
- 3교시 10:40-11:40	- 9교시 21:00-22:00
- 4교시 13:30-14:30	- 10교시 22:10-23:10
- 5교시 14:40-15:40	

이 중 8월까지의 하루 6교시, 9월부터는 7교시 이상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루 6~7시간이라는 기준을 정해두니, 아무리 힘든 날에도 "그래도 6시간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② 기상 스터디(6월~10월)

공부 습관이 잡히자 아침형 생활을 만들고 싶어 6:50~7:50 사이에 30분 공부 인증을 하는 기상 캠프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30분 동안 앉아서 공부하며 잠에서 깨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하루를 잘 보내보자는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③ 물미역 기상 스터디 (10.11~ 시험 전날)

기상 스터디 전에 씻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운영하게 된 스터디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기상 시간을 조금씩 앞당겨 갔고, 시험 전주에는 기상 시간을 약 5시 30분까지 앞당겼습니다. 자신이 정한 기상 시간 전까지 머리를 완전히 적신 상태로 인증하는 방식의 스터디였는데, 저는 아침에 꼭 씻어야 하는 사람이라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④ 단계명 스터디 (5월 중반~ 10월)

의사소통과 사회관계 영역의 단계명 인출을 위해 참여한 스터디입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부담이 적었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소통과 사회관계 영역에 익숙해진 이후에는 예술경험과 개론 단계도 함께 섞어 진행했습니다. 하루 3개씩 백지쓰기 인증을 하는 방식이라 큰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⑤ 논술 인증 스터디 (5월 중반~8월)

논술 인증 스터디는 위에서 서술한 공부 방법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 작성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논술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행했던 모든 스터디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서 개선하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스터디를 선택하거나 직접 운영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1차 시험

- ◆ 시험장에 가져갈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기존에 공부하던 자료에 인덱싱을 해두는 방법을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용 자료를 따로 만들고 싶었지만, 새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인덱싱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필요가 있다고 느낀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여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번 시험부터는 교시별로 과목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시 구성에 맞춰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둔 부분을 보며 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 모의고사로 시간 분배 연습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일에는 문제를 잘 풀고 싶다는 마음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시간을 잘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1교시에서 10분이 남은 상황에서 대문항 두 개를 남겨두고 있었고, 그 순간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마지막 두 문제를 겨우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 쉬는 시간에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했고, 그 와중에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간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 와도 멘탈을 스스로 잘 붙잡는 것이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 2차 준비 방법

1) 발표 전

- ◆ 1차 시험을 마친 후, 잘 보았다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올해는 후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시험들에서는 시험을 준비하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았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2차 강의는 인강을 끝까지 충실히 들을 자신이 없어 직강으로 수강했습니다. 박수민 교수님의 2차 강의를 네 번째 듣는 것이었지만, 아직도 내용을 완전히 내면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는 직강이 더 집중이 잘 되는 방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 초수 때는 사례운영반으로 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있었고, 재수와 3수 때는 스터디를 통해 경기 기출을 돌렸지만, 돌이켜보면 제대로 2차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된 스터디 진도를 따라가는 데 급급해 내용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한 채 벅차게 공부해 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발표 전까지 혼자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 이에 친구와 함께 캠퍼스터디를 하며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 보다는, 직장인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성실하게 공부해 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9시에 캠을 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 면접

◆ 오전에는 각자 개인 공부 시간을 가졌고, 저는 면접 기출을 중심으로 답을 구상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 문항을 보면서 한글 파일에 주제별로 제 나름대로의 답을 작성한 뒤, 모범답안을 보고 정리하며 답변을 확장하고 내면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하면서 답하는 연습까지는 하지 못했고, 기출을 분석하며 내 답을 생각해보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2) 시책

◆ 오후에는 친구와 함께 시책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첫날에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경기 유아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을 읽으며 공부할 키워드(주제)를 추출했습니다. 시책 공부는 처음이라 방향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정리하다 보니 점차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발표 전 진행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에 독감이 걸려 10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ππ 이때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도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 유·초 이음교육
2.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관련
3. 공정 및 공공성 강화
4. 인성교육(마음이음유치원)
5.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과정
6. 생태전환교육
7. 소규모 유치원(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8. 건강·안전교육(나침반 5분 안전교육 등)
9. 자율, 균형, 미래
10. 교사의 전문성 증진 및 유치원 자율장학/ 교육활동 보호

◆ 점심 먹고 다시 캠을 켜서 시간을 정한 후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각자 공부했습니다. (1시간으로 잡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서로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키워드 한 개씩 진행하면서,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시책을 찾아 읽은 후, 나올 수 있는 문제 세 가지를 추출하고 각 문제에 대한 자신의 답을 미리 생각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 이후 전화로 각자 생각한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문제① → B 답변 → A가 준비한 답 공유 → B문제① → A 답변 → B가 준비한 답 공유 ...)
세 가지 문제 중 한두 개는 서로 겹치기도 하여 중요한 핵심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관점의 질문도 나와 지식을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딱딱한 방식보다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 했던 시책 공부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시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고, 발표 전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주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시책은 아는 것에서 그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 전에 시책 주제에 대한 의견이나 실현방안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수업

- ◆ 시책 공부를 마친 후 15분 정도 휴식을 가진 뒤 다시 캠을 켜서 각자 수업 구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업설계는 하지 않았고, 15분 동안 수업만 구상한 뒤 간단한 수업 흐름을 설명하는 음성을 녹음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 ◆ 또한 이 시기에 만능틀을 완성했습니다. 수업 자료를 기반으로 수업 순서와 발문을 한글파일로 정리하고, 그날 완성한 만능틀을 암기하여 구술로 녹음해 서로 공유했습니다.

2) 발표 후

(1) 대면 스터디

- ◆ 1차 발표가 난 직후 바로 스터디원을 구해 짝스터디로 진행했습니다. 발표 전 함께 공부한 친구와는 집이 멀어서, 집이 가까운 선생님과 함께했고, 도서관 스튜디오를 대여해 월·수·금 주 3회, 회당 4시간씩 운영했습니다.
- ◆ 스터디 구성은 면접 1세트, 수업 2세트로 진행했습니다. 수업설계는 처음에는 대구 기출을 제비뽑기로 뽑아서 연습했고, 나중에는 수업나눔 기출을 바탕으로 각자 한 문제씩 직접 만들어와서 진행했습니다.
- ◆ 스터디가 끝난 후에는 도서관 열람실로 올라가 오늘 진행한 면접 주제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내 답변을 녹음하여 나온 스크립트와 모범답안, 피드백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했습니다. 수업은 피드백 받은 것을 반영해서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찍어보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당일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면 다음날이라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내면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면 스터디 수업유형, 면접 주제 계획입니다.

동극, 동시	이야기 나누기, 새노래	악기연주, 음악감상	미술 표현, 영화 감상	자유놀이	신체활동, 신체 표현	과학, 요리	게임, 캠페인 활동	재난대비, 현장학습, 바깥활동
유아중심 교육,	가정 연계,	교사 자질 개발, 교직원	다문화, 통합교육	교육활동 개발, 생태교육	건강안전	에듀테크	유아행동 지도	시책
놀이중심 교육	지역사회 연계, 동료	인성교육	사회 문제와 교육	유아평가				

- ◆ 이후 시험 직전 4일을 추가로 확보해, 각자 취약하다고 느끼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수업 유형과 시책 면접을 한 세트씩 구성하여 하루 3시간씩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연습했던 수업 유형과는 다른 유형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었지만, 면접에서는 스터디원과 함께 깊이 이야기했던 주제(사교육!)가 그대로 나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또한 이 시기에는 시험 직전이라 피드백을 반영하여 추가로 영상촬영하기보다는, 각자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구상해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스터디가 끝난 후에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날 집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할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공부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짝스터디 선생님과 합격을 목표로 서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했고, 시거나 질투, 견제 없이 진심으로 응원하며 피드백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두 사람 모두 컷에 가까운 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시책 스터디

◆ 대면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는 화, 목, 토, 일에는 시책 스터디를 배치하였습니다. 시책 스터디는 네 명으로 진행하여 각 주제별 시책을 찾아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한 문제씩 올리고, 모든 문제에 모두가 답변을 다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문제에 답을 다는 것이 갈수록 버겁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답을 달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책 스터디는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1. - 2026 경기교육 기본계획, 2025 경기유아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2. - 2025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3. -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4. <놀이>
5. <자기성장소개서>
6. <유초이음교육>
7. <디지털 교육>
8. <인성교육>
9. <생태, 환경교육>
10. <자율장학, 학교자율과제>
11. <평가>
12. - 2026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13. - 26 경기도 교육감 신년사, 2026 경기유아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 대면 스터디가 없는 날에는 시책 스터디 외에도 번개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했고, 만능틀을 암기하거나 다양한 수업문제를 구상만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시책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험 직전에 해보니 수업을 많이 구상해보는 것이 좋다고 느껴서 돌아간다면 대면 스터디가 없는 날에는 수업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를 구상만 해보는 것을 계획에 추가할 것 같습니다.

3) 2차 평가실 상황 기록

◆ 시험장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정리한 뒤, 평가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대기실 아래층이 평가실이어서 한 층 내려가면 창문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기석과 평가석의 위치를 확인했고, 시계의 형태도 살펴보았습니다.

◆ 평가실에는 작은 네모 형태의 디지털 시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 시각이 표시되는 시계였습니다. 면접 시에는 면접 좌석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시계가 놓여 있었고, 수업 날에는 수업설계 역량 발표 자리와 수업실연 자리 모두에서 볼 수 있도록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기번호를 뽑은 뒤 평가 종료 시각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어가, 개인 시

계는 보지 않고 평가실의 디지털 시계를 보며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 ◆ 첫째 날 면접에서는 대기번호 12번 중 11번을 뽑았습니다. 경기도는 대기 중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제별로 답을 떠올려보기도 했고, 이후에는 제 인생의 시기별로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떠올려보았습니다. 속으로 일화를 정리하며 잘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긴장을 푸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잠도 자긴 잤습니다^^)
- ◆ 평가실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님들께서 다소 지쳐 보이셨습니다. 저를 거의 쳐다보지 않으셨고, 특히 구상형 질문에서는 면접관님과 눈을 거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답변 역시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꼈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 뒷 번호를 뽑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인생을 한 번 돌아보며 사유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정말 피곤하긴 했습니다...^^
- ◆ 수업 날에는 대기번호 3번을 뽑아 속으로 기뻐했지만, 문제를 보고는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구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 면접 평가를 마치고 나와서는 시간 관리를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즉답형의 경우 시간 배분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경험을 이야기하는 문항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짧은 시간 안에 구조화해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 면접 구상형 2번 문항은 박쌤 제본집 연습문제에 있던 주제와 유사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습문제라고 해서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제본집에 수록된 문제들도 빠짐없이 다뤄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 ◆ 수업 실연 평가를 마치고 나와서는 스스로 정말 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할 때는 늘 시간이 부족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당황한 마음과 충분하지 못한 구상으로 시간이 남아버렸고, 특히 전개에서 매우 짧게 실연한 것으로 느껴져 아쉬움이 컸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점수가 많이 깎이지 않은 것을 보며, 수업에서는 내용뿐 아니라 태도와 기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해내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말고 끝까지 자신 있게 임하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

- ◆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잦은 체력 저하로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10월이면 각종 병원을 자주 오갈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부만큼이나 건강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준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 작년에는 생활 패턴을 잡고 일상에 활력을 주기 위해 유치원 오전 보조를 병행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시험이 가까워지는 하반기에는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니 감기가 유행하면 쉽게 옮게 되었고, 물놀이나 현장학습이 있는 날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제 상황에서는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합격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지만, 저의 경우에는 체력적인 한계가 비교적 크게 작용했던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그래서 올해에는 체력 관리를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주 3회 필라테스와 주 2회 수영을 병행했습니다. 항상 주5회 가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서 컨디션을 유지하고 공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8월에는 주 2회 수영만 진행했고, 9월 이후에는 운동을 중단했지만, 상반기에 쌓아둔 체력이 큰 도움이 되어 비교적 큰 아픔 없이 시험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 ◆ 또한 시험 전 한 달은 본가에서 지내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취 생활에서의 집안일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이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모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제게는 체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 ◆ 이와 함께 7월까지의 일요일을 휴식일로 두었고, 8~9월에는 일요일에 오답노트 정리만 하며 비교적 가볍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리하게 공부를 이어가다 몸이 상하는 것보다는, 하루를 쉬며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제게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날에는 잠을 충분히 자고, 집을 정리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며 다음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했습니다. 수험생으로서는 다소 부끄럽지만, 이러한 휴식 덕분에 큰 번아웃이나 질병 없이 한 해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 스트레스 극복 방법

- ◆ 저는 노래 듣기와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헤드폰으로 EDM을 크게 들으며 감정을 환기시키곤 했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공원에 가서 걸으며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1분 1초가 아깝게 느껴지지만, 가끔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도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앉아 있기보다는 몸을 움직이며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저에게는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 ◆ 메모장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마구 적어보기도 하고, 달달한 카페 음료를 마시며 산

책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당장 큰 변화를 주지는 않더라도, 나를 돌보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며칠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 ◆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보다는,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칭찬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는 '내가 아니면 누가 돼!'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잡으며, 불안한 순간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나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5. 소감 (공부하며 느낀 점)

- ◆ 초수 때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금방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해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만 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 공부를 하며 느낀 점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이후에는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 과정 자체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느꼈습니다.
- ◆ 1차 시험을 보고 나서는 제 청춘이 모두 지나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걸려서 합격을 경험해 보니, 그만큼 더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 혹시 지금 이 시험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선생님이 있다면, 이 시험 하나로 스스로를 작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수민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에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